경기선행지수 완전 해부

2011. 3

SK Securities Research Center

Fixed Income Analyst
염상훈
+822-3773-8882
yum@sk.com
야후 메신저 : yumsanghoon@yahoo.com

들어가며 : 선행지수 반등 여부,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

Hey, Try me!

선행지수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큰 저점(08년 12월 -4.15%)과 고점(09년 12월 11.52%)를 경험한 상황에서 앞으로 선행지수가 이전처럼 강력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2월에 선행지수가 또 다시 반등을 이어간다고 해도 시장은 3월 선행지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투자판단을 위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SK증권은 2월 선행지수는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선행지수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하나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되지 않기 위한 받침돌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차피 맞추지 못할 미래를 예측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상치를 제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올해 소비자물가에 이어 SK증권은 두 번째 경제지표 예측 모델인 선행지수 예측 모델을 시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시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부탁 드립니다.

- 선행지수가 제발 반등하길 기도하며, 염상훈 올림

CONTENTS

경기선행지수 완전 해부

1 경기선행지수 이야기

1)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
2) 경기선행지수 변환과정의 특징
3) 지금까지 선행지수와 채권금리는 함께 움직였다

2 경기선행지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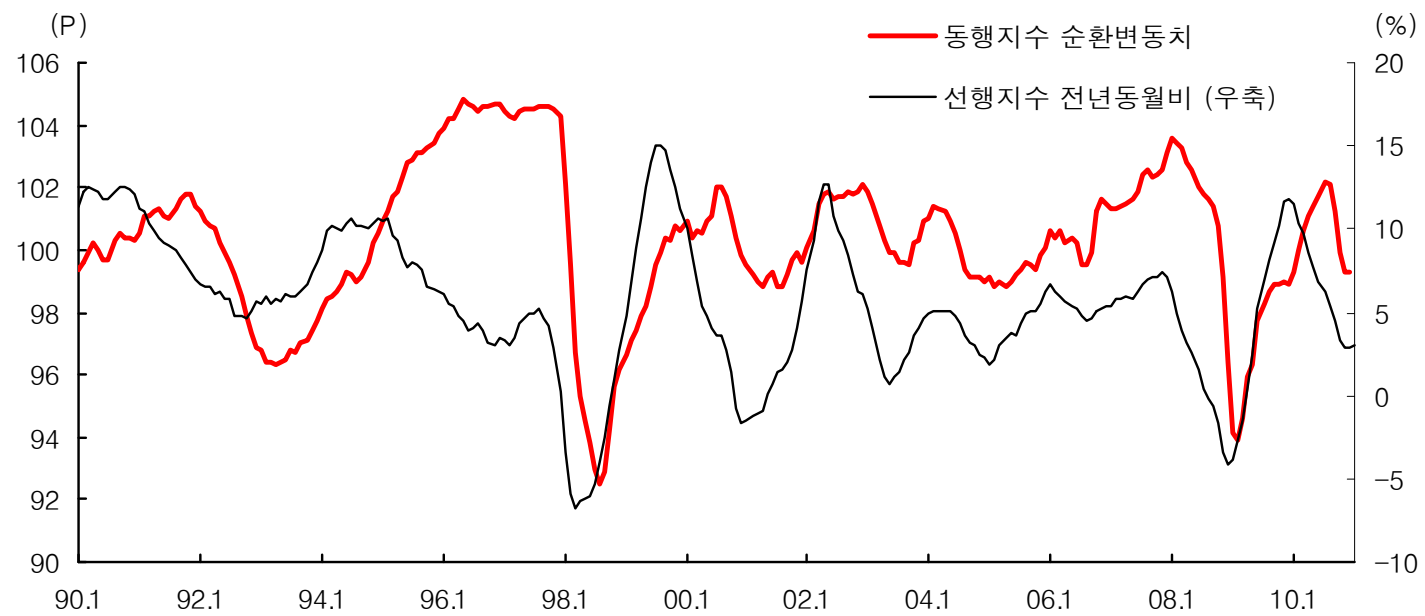
1) SK증권 2월 경기선행지수 예상치 3.4%로 반등 지속 전망
2) 경기선행지수 예측 모델의 구성
3) 경기선행지수 개별 구성항목 특징과 2011년 전망

경기선행지수의 선행성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7.9개월 선행**
  - **선행지수는 경기저점의 경우 6.1개월, 경기고점은 10개월 먼저 나타남**

	경기저점								경기정점							평균		
	80.9	85.9	89.7	93.1	98.8	01.7	05.4	09.2	84.2	88.1	92.1	96.3	00.8	02.12	08.1	저점	정점	전체
선행시차	10	11	7	4	5	7	3	2	8	10	15	15	12	8	2	6.1	10	7.9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자료: 통계청, SK증권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

경제 부문	지표명	내 용	수집시기	작성기관
생산	재고순환지표 (제조업)	- 재고순환지표=출하증가율(전년동월비)-재고증가율(전년동월비) - 포괄범위 : 제조업	익월말	통계청
소비	소비자기대지수	- 개념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조사대상가구 : 도시지역의 약 2,200개 표본가구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당월말	한국은행, 통계청
투자	기계수주액 (불변)	- 개념 : 주요 설비용기계류 제조업체의 매월 수주액 / 수주액 : 조사대상기간(매월 1일~말일)중 주문 받은 총계약금액 - Deflator : 불변수주액은 경상수주액을 생산자물가지수(2005=100)를 환가한 것임	익월하순	통계청
투자	자본재수입액 (실질)	- 개념 : 전체수입액중 자본재부문의 수입액만을 집계, 2005년 기준 원자재(54%), 자본재(36%), 소비재(10%)분류 - Deflator : 수입물가지수(자본재, $기준)	익월중순	관세청
	건설수주액 (실질)	- 개념 : 일반건설업체 국내건설공사 매월 수주액 / 조사대상 :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중 최근년 건설업통계조사 결과기준 - Deflator : 생산자물가지수(총)	익월하순	통계청
무역	순상품교역조건	- 개념 :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내며,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서 100을 곱해 산출 - 교역조건 :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 / 순상품교역조건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x 100	익익월 중순	한국은행
고용	구인구직비율	- 구인구직비율 =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자수) x 100 / 신규구인인원 : 구인하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 등에 신청한 것을 고용정보망으로 집계, 신규구직자수 : 구직자가 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한 것을 고용정보망으로 집계	익월하순	한국고용 정보원
금융	종합주가지수	- 개념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산출 - 종합주가지수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 x 100, (기준시점 : 1980.1.4=100, 월평균 주가지수)	익월초순	한국 거래소
	금융기관유동성 (Lf, 실질, 말잔)	- 개념 : Lf는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전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Deflator : 생산자물가지수(총) - Lf = 현금통화, 결제성 예금(M1) + 준결제성 예금(M2) +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타 예수금 등	익익월 중순	한국은행
	장단기금리차	- 개념 :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수치 (월단위 작성) - 장기금리 : 국고채유통수익률(3년)의 월평균금리 / 단기금리 : 무담보콜금리(1일물, 중개거래)의 월평균 금리	익월초순	한국은행

자료: 통계청, SK증권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 변환과정

- **1단계 : 구성지표의 계절 및 불규칙 조정**
  - 경기적 요인과 비경기적 요인으로 구성된 구성지표 원계열에서 비경기적 요인 제거
- **2단계 : 전월비 증감률 산출**

$$\text{금월증감률} = \frac{(\text{금월치} - \text{전월치})}{(\text{금월치} + \text{전월치})\ /2} \times 100$$

- **3단계 : 증감률 진폭의 표준화 및 종합증감률 산출**
  - 표준화 : 증감률의 진폭이 큰 (변동성이 큰) 구성지표가 종합지수를 좌우하지 않도록 구성지표 증감률의 진폭을 평균적으로 같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전월비 증감률의 표준편차의 역수를 전체 구성지표 표준편차의 역수의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 인자를 산출
  - 구성지표의 표준화 증감률 = 구성지표의 전월비증감률 X 구성지표의 표준화 인자값

Notice : 계절조정 및 불규칙 요인 제거(1차 스무딩 작업)와 표준화 과정(2차 스무딩 작업)으로 인해 건설수주액이나, 기계수주액과 같은 지표의 급변동이 선행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지 않다

행복파트너

제거!

$$\text{원계열} = \underbrace{\text{추세요인} \times \text{순환요인}}_{\text{(경기적 요인)}} \times \underbrace{\text{계절요인} \times \text{불규칙요인}}_{\text{(비경기적 요인)}}$$

· 계절요인 제거: X-12-ARIMA 방법 이용

- 계절요인은 전형적 계절변동과 명절 및 조업(영업)일수 변동을 말함

· 불규칙요인 제거: 3~4개월 말항 이동평균

※ 표준화인자 산출과정(선행지수의 예)

지표명	표준편차[1] (=a)	표준편차의 역수 (b=1/a)	표준화인자 (k=b/T)
재고순환지표	2.821	0.355	0.066
소비자기대지수	2.508	0.399	0.075
기계수주액	8.326	0.120	0.023
자본재수입액	3.319	0.301	0.056
건설수주액	9.009	0.111	0.021
순상품교역조건	1.319	0.758	0.142
구인구직비율	6.518	0.153	0.029
종합주가지수	5.126	0.195	0.037
금융기관유동성	0.898	1.114	0.209
장단기금리차	0.547	1.827	0.343
계		5.334 (=T)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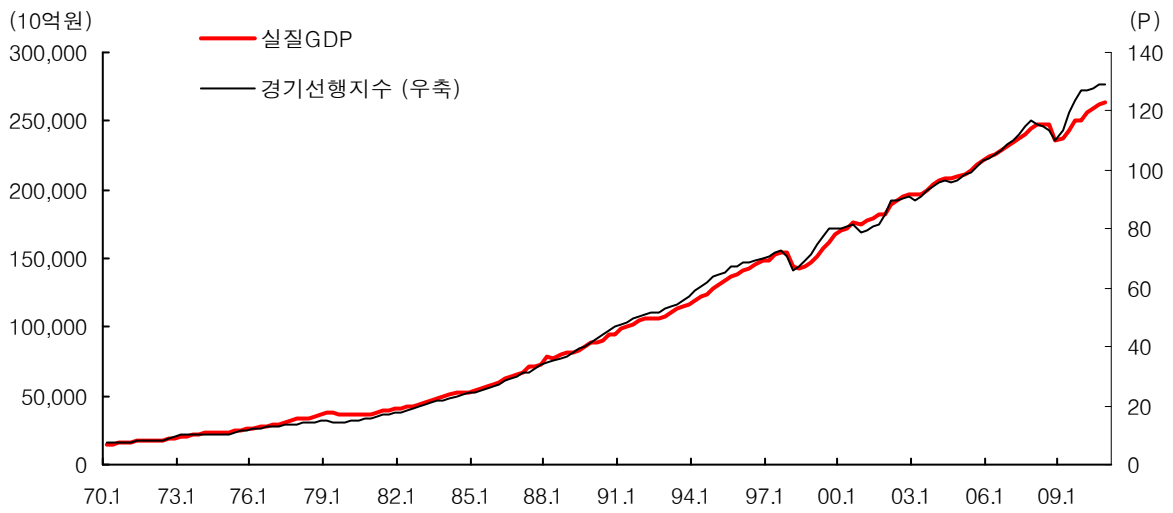
주1) 각 구성지표의 전월비증감률(=대칭변화율; 시계열 시작월~2009.12월)의 표준편차

자료: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변환과정

- **1단계 : 종합지수간 진폭조정**
  - 종합지수들간(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에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각 지수의 진폭이 같아지게 조정
  - 진폭은 동행지수 진폭과 같아지도록 조정
- **2단계 : 추세조정**
  - GDP추세를 목표추세로 하여 각지수의 추세가 GDP추세와 같아지도록 조정
  - 추세조정증감률 = 조정증감률 + GDP추세조정인자
  - GDP추세조정인자 = 과거 GDP월평균증감률 – 과거 추세조정 전 종합지수 월평균 증감률

경기선행지수의 추세는 GDP의 추세와 동일하게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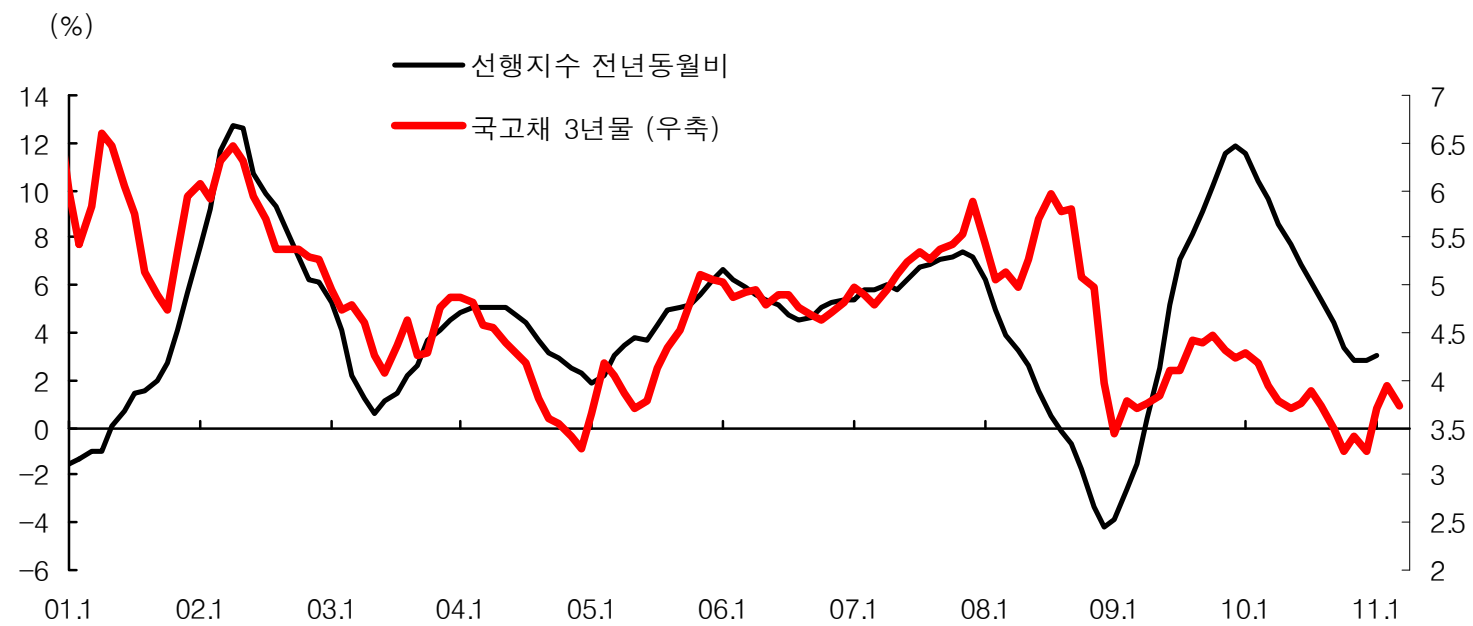
NOTICE : 선행지수의 추세는 GDP의 추세를 따르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선행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 전년동월비 역시 GDP성장률 수준, 5%정도의 양수(+)로 나타난다

자료: 통계청, SK증권

선행지수와 채권금리는 함께 움직인다

- **채권금리 = 경기의 방향 + 물가의 방향**
  - 채권금리는 경기가 좋아지면 상승, 둔화되면 하락
  - 채권금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상승, 낮아지면 하락
  - 미래의 경기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표 경기선행지수
  - 경기선행지수는 채권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

선행지수의 움직임, 채권금리와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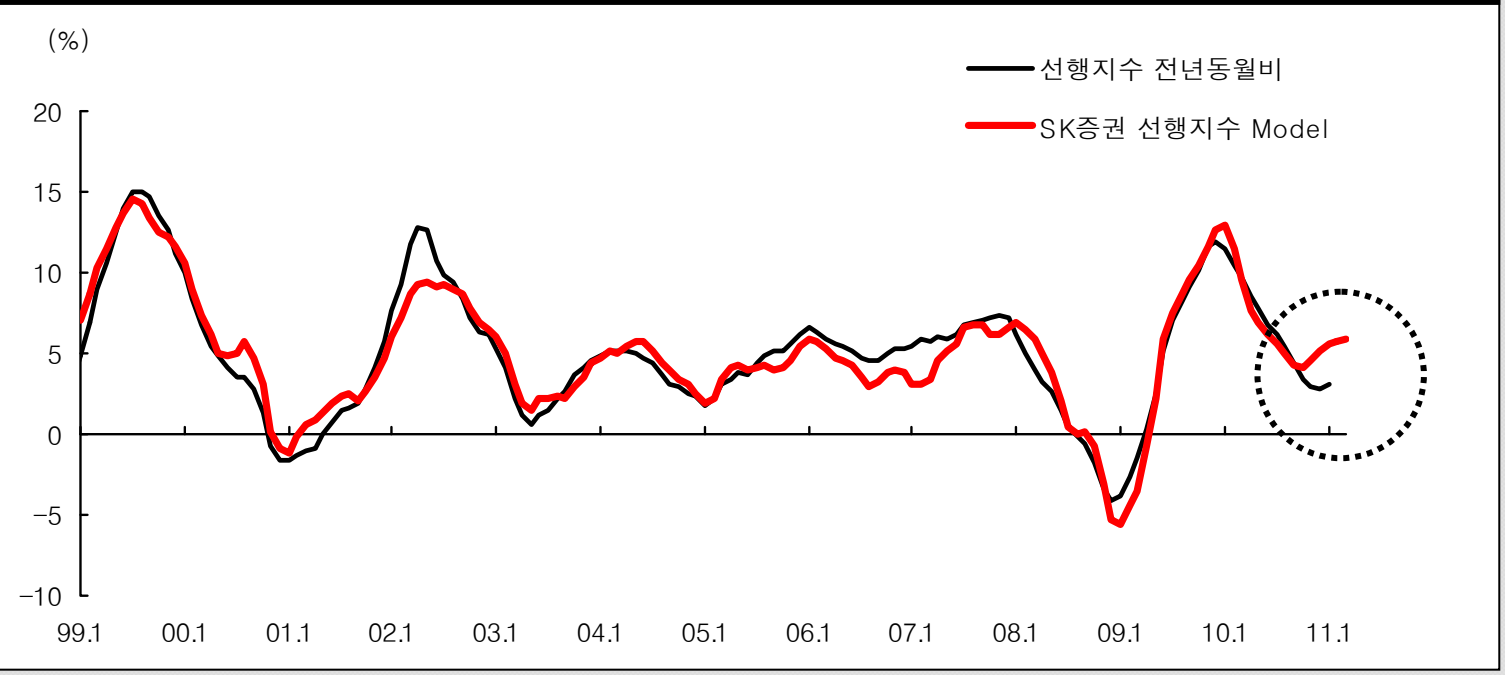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SK증권 선행지수 예측 모델 예상치 : 2월에도 반등 지속

- **SK증권 선행지수 예측 모델 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
  - 현재 1월까지 확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델 예측치는 이미 3개월 연속 반등
  - SK증권의 추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올해 2월과 3월까지의 선행지수는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지난 1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3.06%, 12월 2.82%에서 반등에 성공
  - SK증권 2월 선행지수 예상치 3.4%, 3월 예상치 3.5%로 반등 지속 전망

SK증권 선행지수 예상치 : 2월, 3월 연속 반등 기대



자료: SK증권

SK증권 선행지수 예측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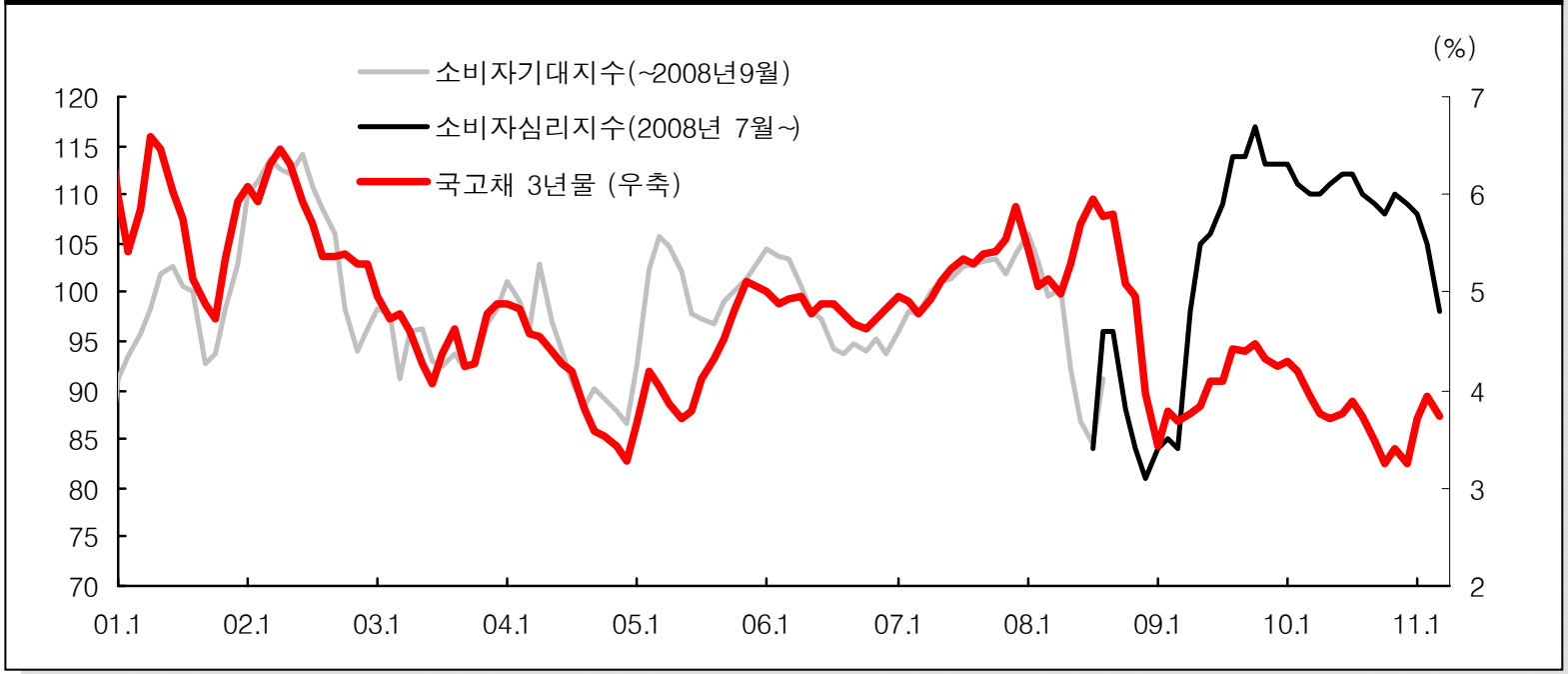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를 대변하는 3가지 Factor로 예측
  - 선행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3가지 Factor
  -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장단기금리차
  - 특히 재고순환지표와 소비자기대지수의 설명력이 월등히 높음
  - 재고순환지표와 소비자기대지수, 장단기금리차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선행지수 추정이 가능
  - SK 선행지수 예측 모델은 이같은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3가지 구성항목(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장단기금리차)을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구성항목	선행지수 상관계수
재고순환지표	0.89
소비자기대지수	0.82
장단기금리차	0.49
순상품교역조건	0.34
자본재수입액	-0.16
종합주가지수	0.12
금융기관유동성	-0.11
구인구직비율	-0.07
건설수주액	-0.05
기계수주액	0.01

선행지수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 **2월 반등 이후에도 반등 지속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 그러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
  - **재고순환지표의 강한 반등이 예상 (선행지수 반등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
  - **Risk 요인 : 소비자기대지수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이미 3월 소비자기대지수,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발표, 2월 105에서 3월 98로 급락)**
  - **그러나 지표 변환과정에서 데이터가 스무딩 되면서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3월 선행지수가 반락한다 해도 4월 소비자기대지수가 바로 반등하면서 선행지수 역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

3월 소비자심리지수,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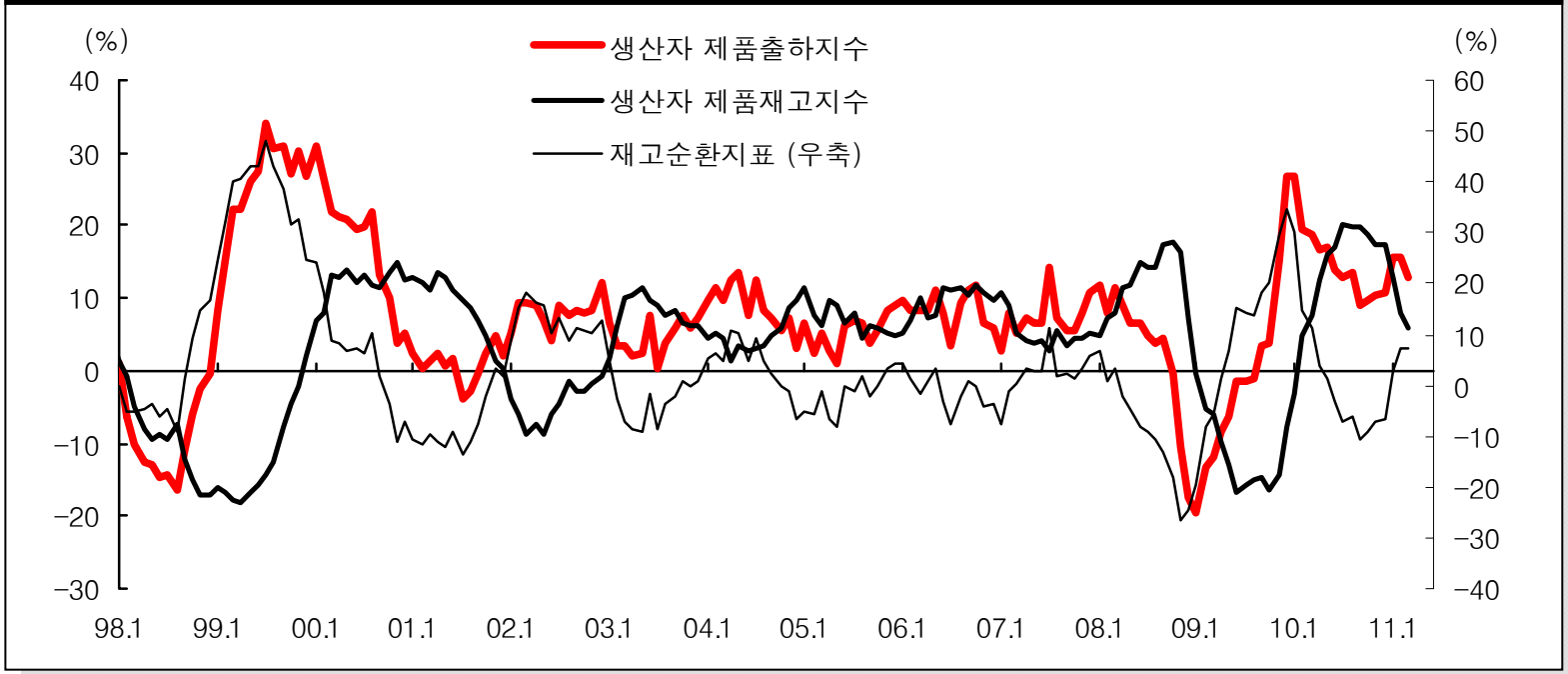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재고순환지표의 강한 상승이 선행지수 반등을 이끈다

- **제품 출하 다시 늘어나는데, 재고는 감소 : 재고순환지표는 상승한다**
  - 재고순환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
  - 주춤했던 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중
  - 제품재고지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둔화
  - 재고순환지표 =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앞으로도 상승 지속 전망

제품출하 다시 회복, 제품재고 하락추세 여전 : 재고순환지표는 상승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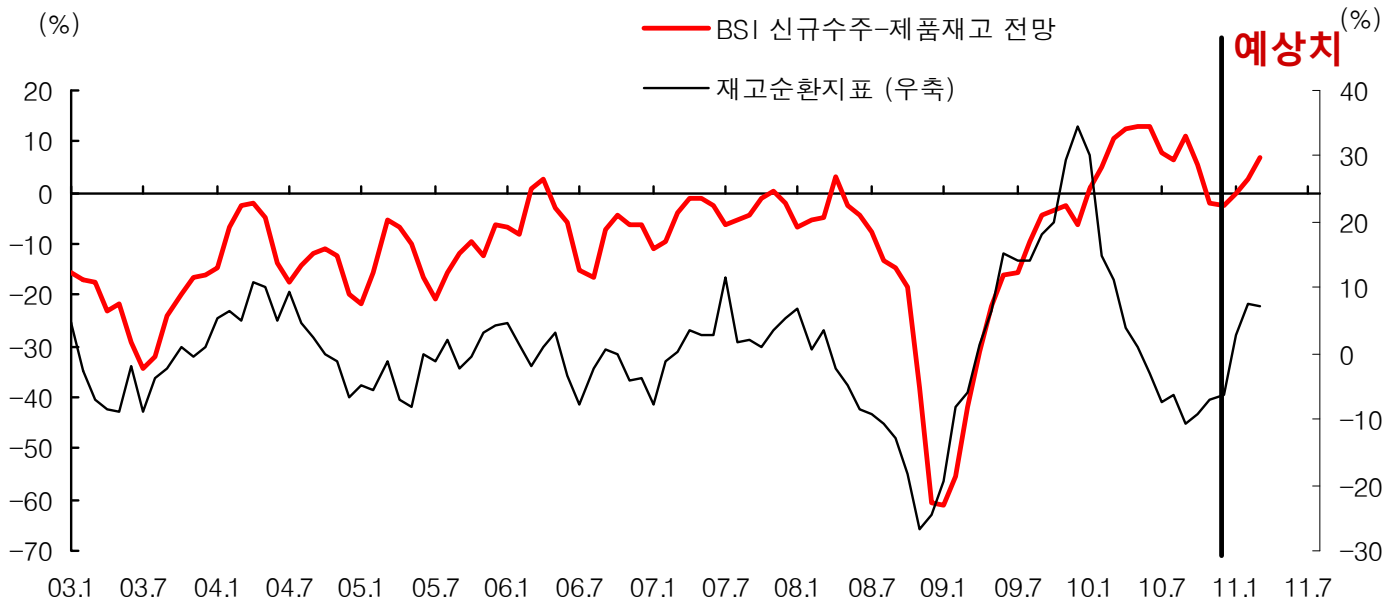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재고순환지표 – BSI에서 미래를 예상한다

- **3월 BSI의 신규수주, 제품재고 전망 예상치 호조**
  - **3월 BSI 크게 개선, 신규수주 전망 104 → 109, 제품재고 전망 104 → 100로 재고순환지표 개선 예상**
  - **트렌드 상으로도 그동안 둔화되던 신규수주 전망이 다시 반등했다는 점, 그동안 늘어나던 제품재고 전망이 반락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
  -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를 동시 사용, 동등한 가중치 부여해서 합산**
  - **재고순환지표와의 상관계수는 0.54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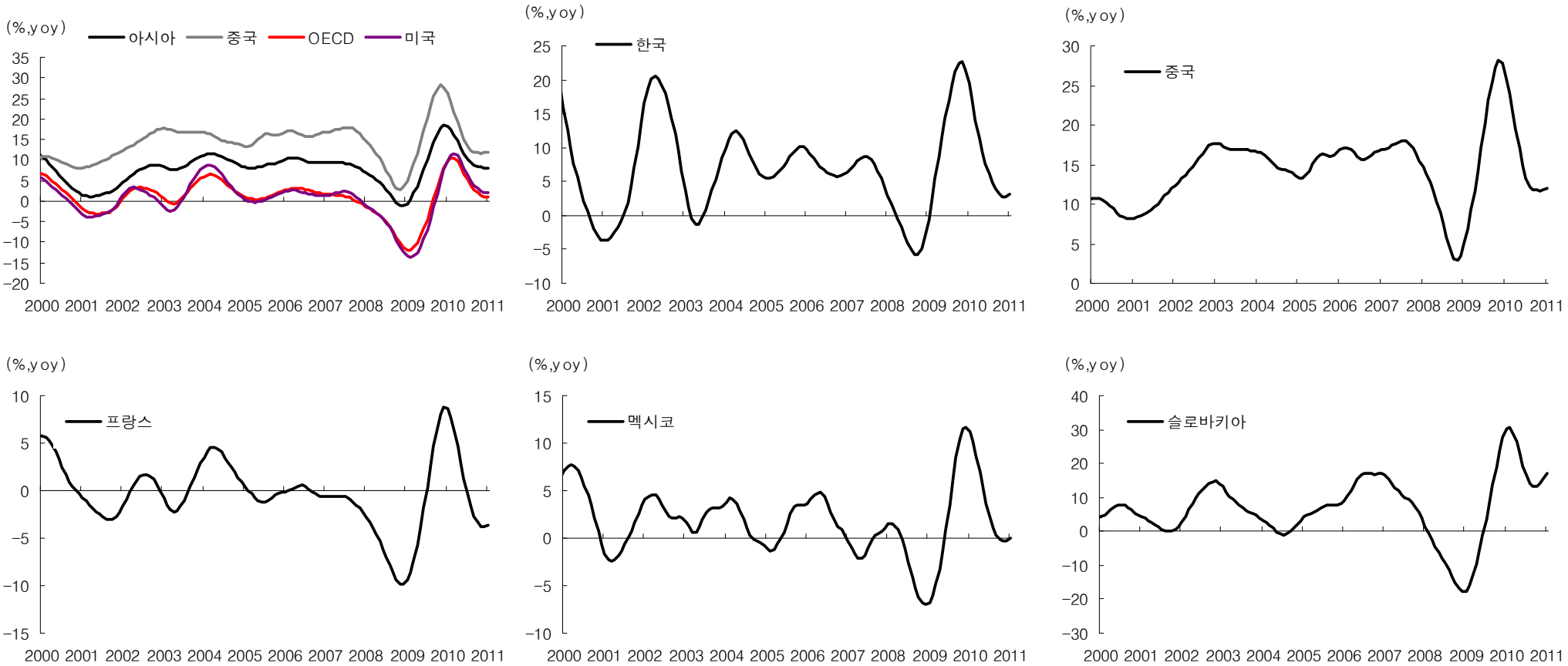
선행지수와 재고순환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SK증권

OECD 경기선행지수 –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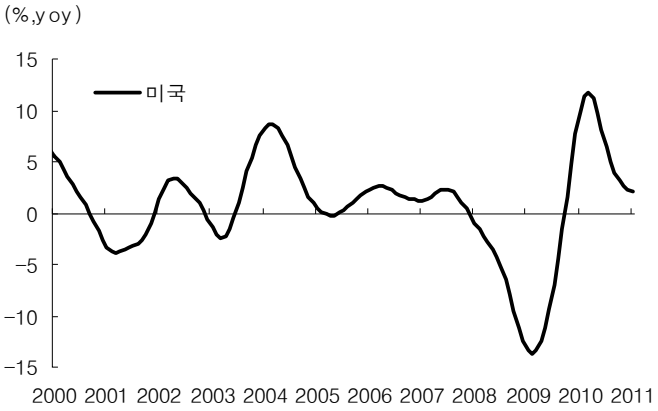
-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나라들**
  - 아시아, 중국, 한국, 프랑스, 멕시코, 슬로바키아, 러시아는 이미 반등, 혹은 반등의 기미가 엿보임
  - 특히 전세계 경기를 선행하는 한국과 멕시코, 중국의 선행지수 반등 동반 출현은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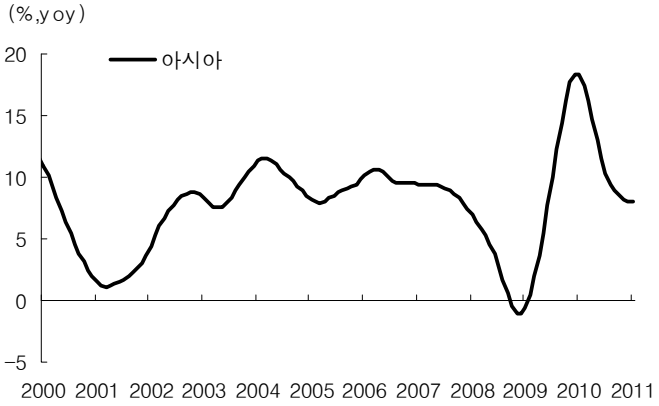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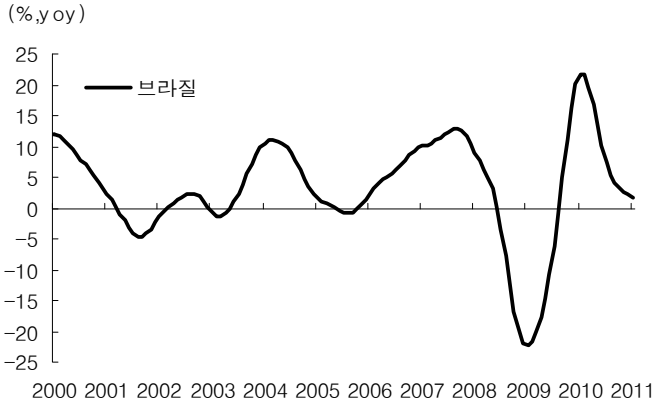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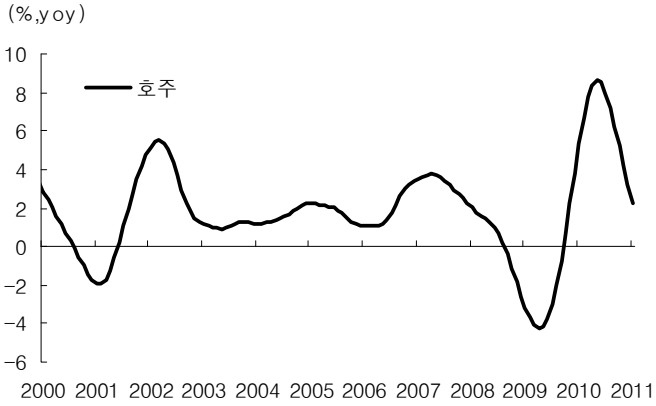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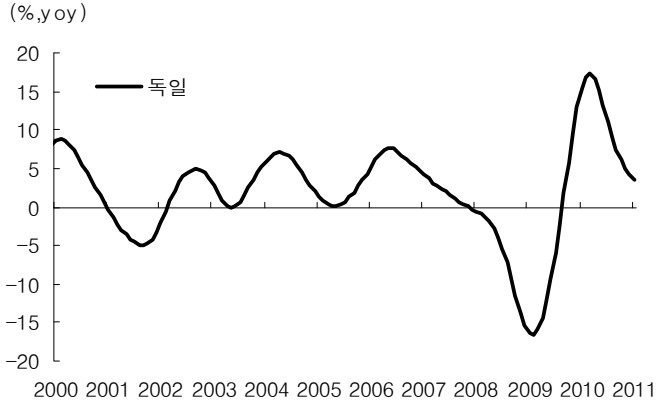
-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나라들**
  - 유럽국가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
  - 미국은 선행지수 저점에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











자료: OECD

경기선행지수 구성항목 개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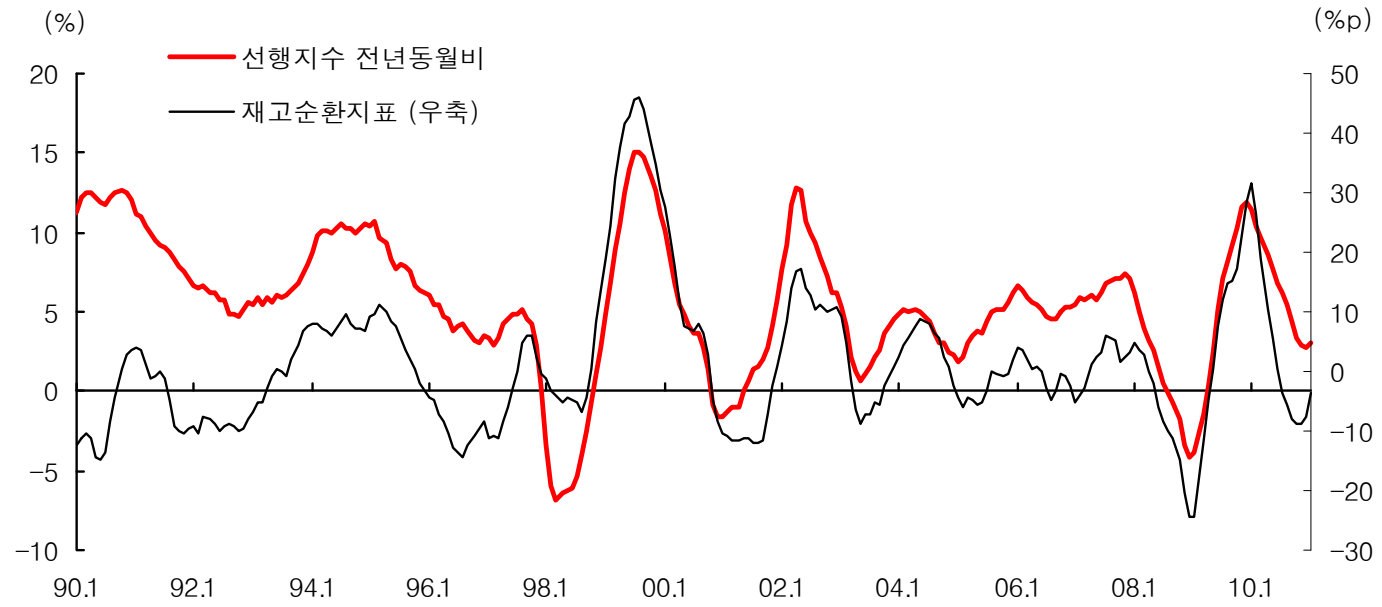
- 상승 예상 요인 4개, 중립 예상 요인 3개, 하락 예상 요인 3개
  - 상승 요인 : 재고순환지표, 자본재수입액, 종합주가지수, 구인구직비율
  - 중립 요인 : 소비자기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기계수주액
  - 하락 요인 : 장단기금리차, 순상품교역조건, 건설수주액

구성항목	상관계수	2011년 전망
재고순환지표	0.89	출하증가율 회복, 재고증가율 감소로 재고순환지표 상승, 선행지수 반등 견인
소비자기대지수	0.82	일본대지진 여파로 3월 급락, 빠른 회복 기대, 올해 전체적으로는 중립요인
장단기금리차	0.49	국고3년 – 기준금리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
순상품교역조건	0.34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품비용 증가, 순상품교역조건 악화 예상 그러나 과거에도 늘상 악화되던 지표라 선행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자본재수입액	-0.16	수출 호조, 큰 돌발변수 없으면 꾸준한 상승세 지속 예상
종합주가지수	0.12	SK증권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1,920 ~ 2,550
금융기관유동성	-0.11	대출증가율 둔화 지속, 부동산 시장 살아나지 못하면 금융기관 유동성은 둔화
구인구직비율	-0.07	실업률 개선, 경제성장 지속으로 구인구직비율 상승 중, 추세 지속 전망
건설수주액	-0.05	경제회복으로 공공수요 건설수주 감소, 민간수주 역시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
기계수주액	0.01	지난해 설비투자 상당부분 이루어져, 올해 기계수주는 중립 요인으로 판단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1 – 재고순환지표 (상관계수 0.89)

- **재고순환지표는 곧 선행지수다!**
  - 재고순환지표는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지표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음
  - 재고순환지표만 제대로 예측할 수 있어도 선행지수의 방향과 변곡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재고순환지표는 선행지수보다 약 1개월 정도 늦게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선행지수가 2011년 1월에 반등했지만, 재고순환지표는 2010년 12월에 한 발 먼저 반등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향후 재고순환지표 반등 지속

선행지수와 재고순환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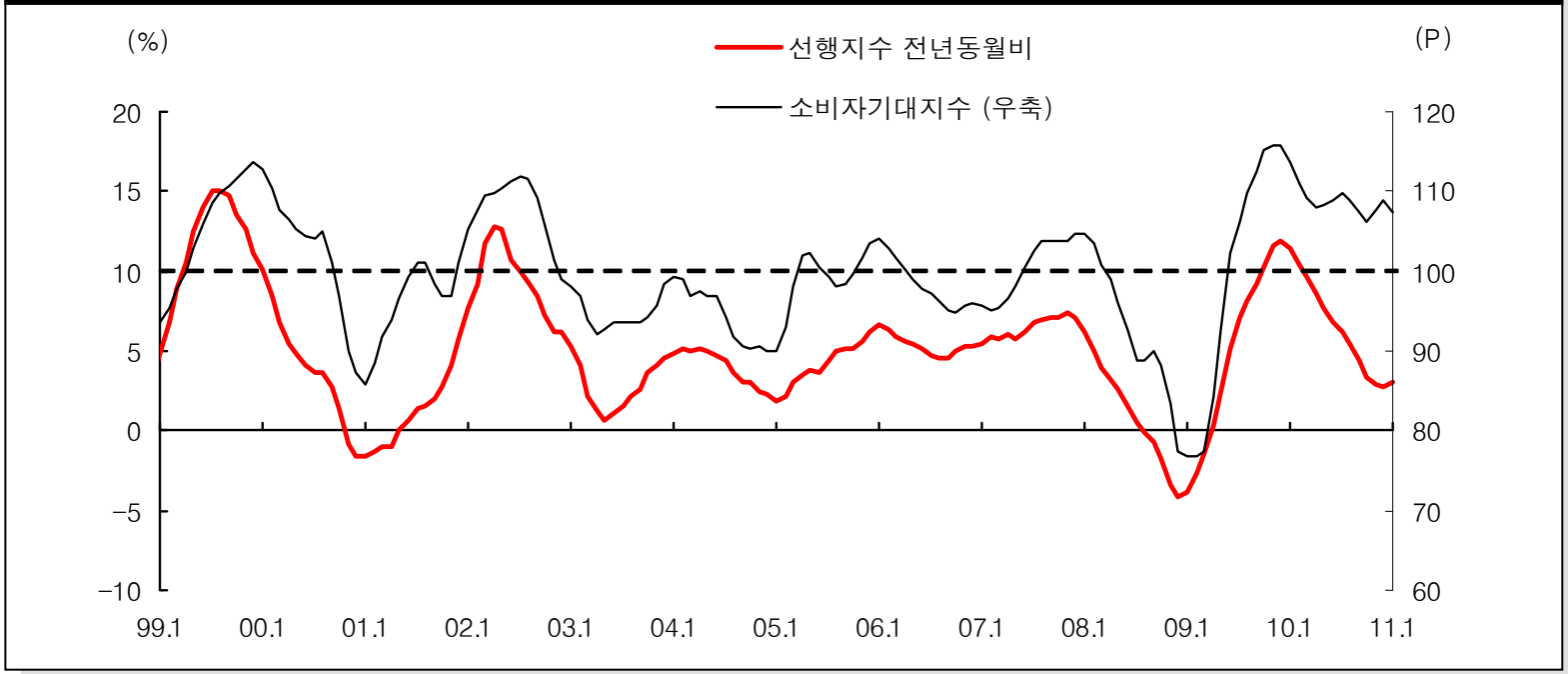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2 – 소비자기대지수 (상관계수 0.82)

- **소비자기대지수와도 높은 연관성을 보임**
  - 소비자기대지수가 표본가구들을 상대로 미래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는 심리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와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남
  - 현재 1월 선행지수 내의 소비자기대지수가 여전히 107.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
  - 그러나 앞으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우려가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소비자기대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선행지수 반등 지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선행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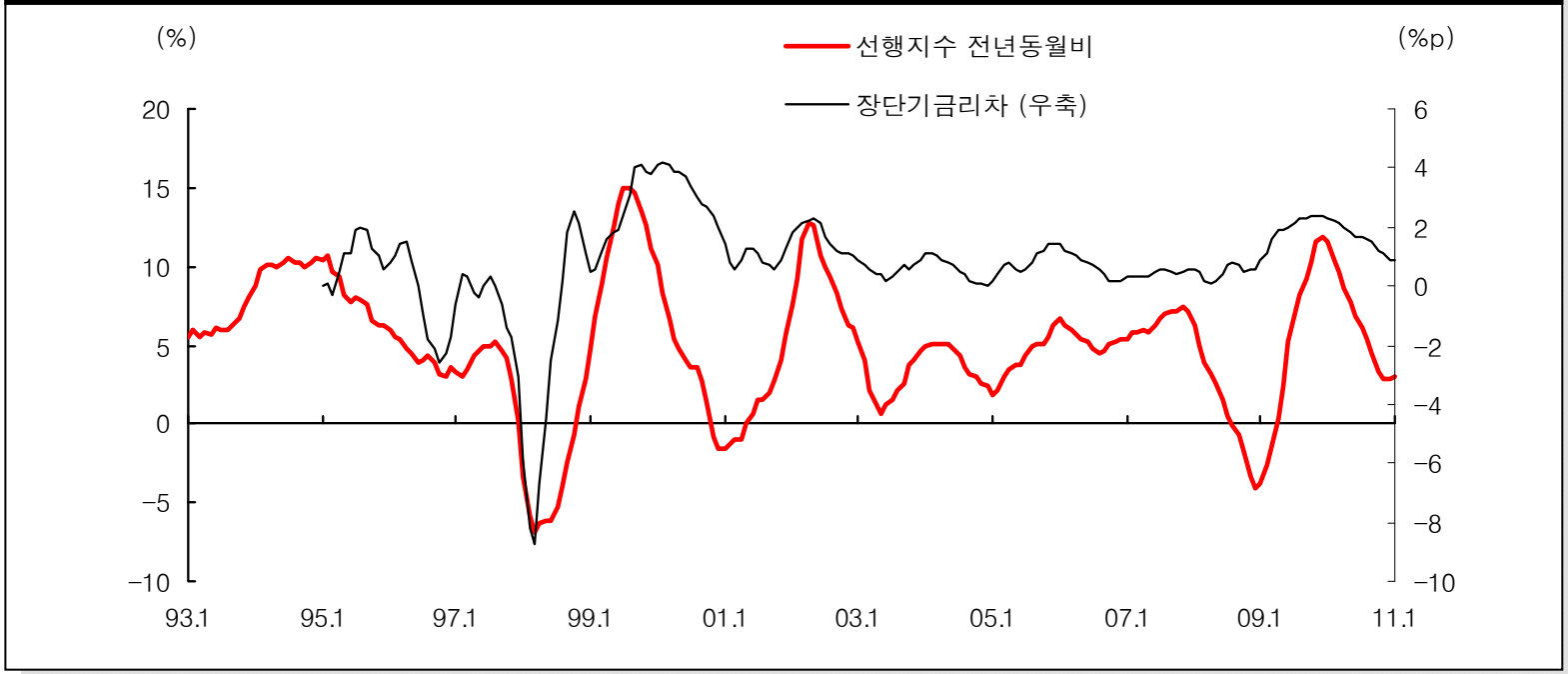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3 – 장단기 금리차 (상관계수 0.49)

-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둔화 신호, 그러나 우리나라 장단기금리는 장단기가 아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선행지수 내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 3년물과 기준금리(무담보콜금리)의 차이를 의미
  - 그래서 장단기금리차를 경기둔화의 신호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와는 상관계수 0.49를 나타내면서 나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장단기 금리차는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 지금보다 점차 조금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

선행지수와 장단기금리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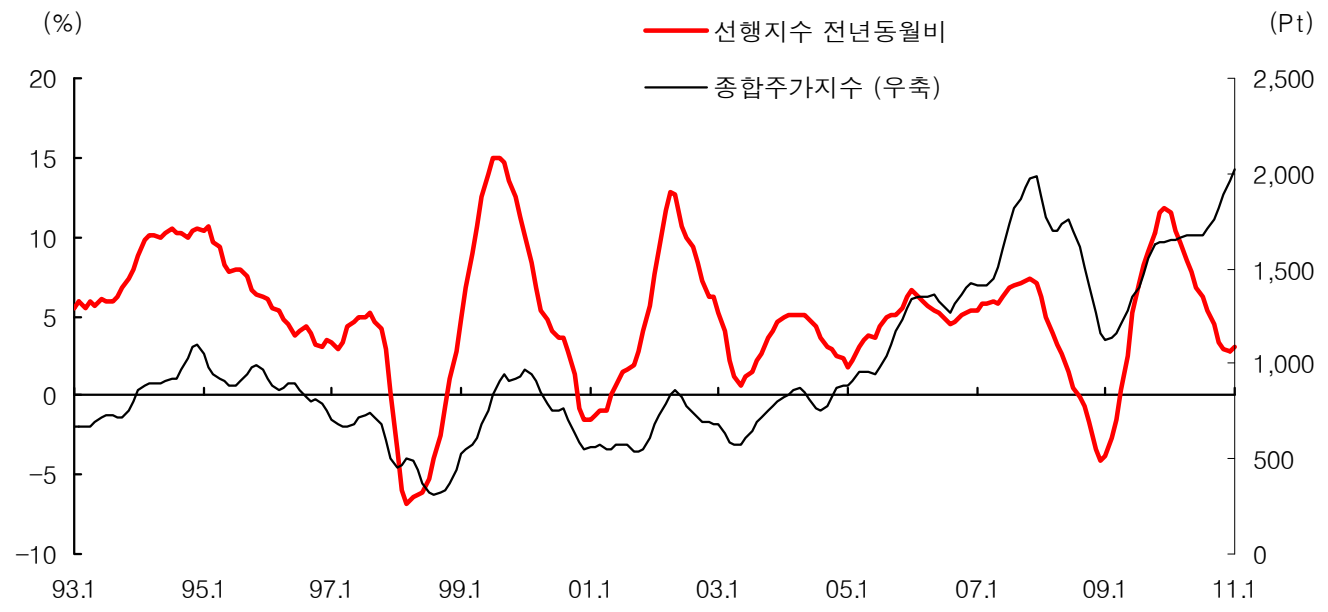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4 – 종합주가지수 (상관계수 0.12)

- **채권금리보다는 상관관계 약한 모습**
  - 선행지수의 방향은 주식보다는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함
  -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선행지수와 종합주가지수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 도표에 나타난 종합주가지수는 선행지수 구성지표로서의 변환과정을 거친, 비경기적 요인이 제거된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냄

선행지수와 종합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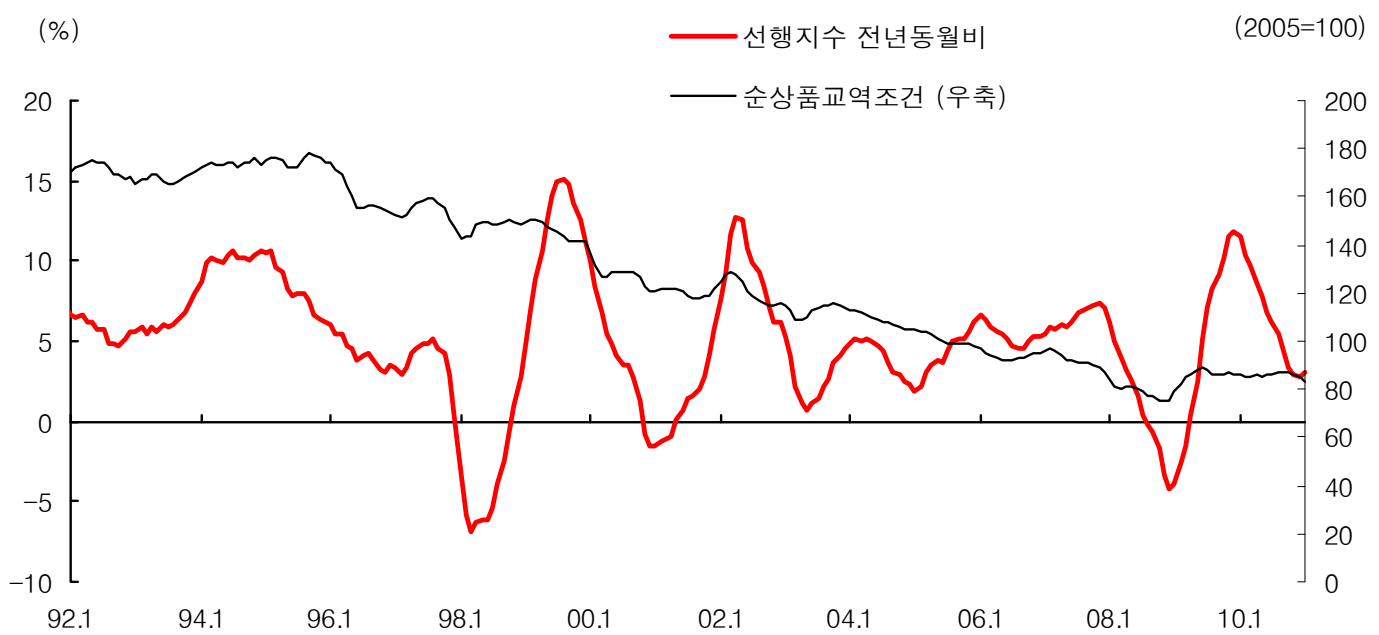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5 – 순상품교역조건 (상관계수 0.34)

- **순상품교역조건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
  - 그러나 우리의 수출 주력제품은 반도체, IT제품 : 치열한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가 하락 지속
  - 주된 수입제품은 원자재, 석유 등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수입단가 상승 지속
  - 그러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표인 만큼 예전 수준의 지표 하락은 선행지수 자체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해

선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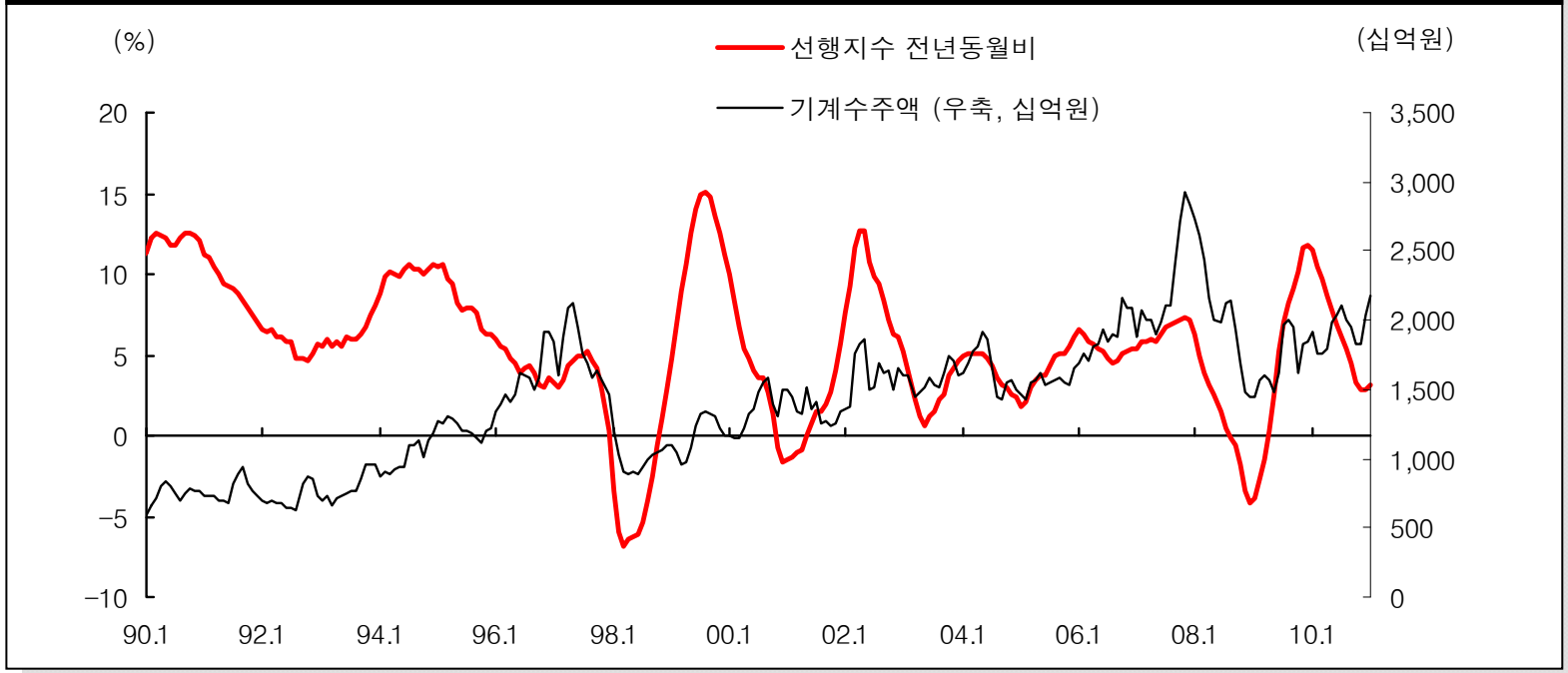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6 – 기계수주액 (상관계수 0.01)

- 이후부터의 구성지표는 선행지수와의 상관관계 없거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님
  -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큼
  - 올해 전망 : 단기적으로는 수주가 확대되고 있지만, 2010년 설비투자가 꽤 이루어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하락전환 할 것으로 예상

선행지수와 기계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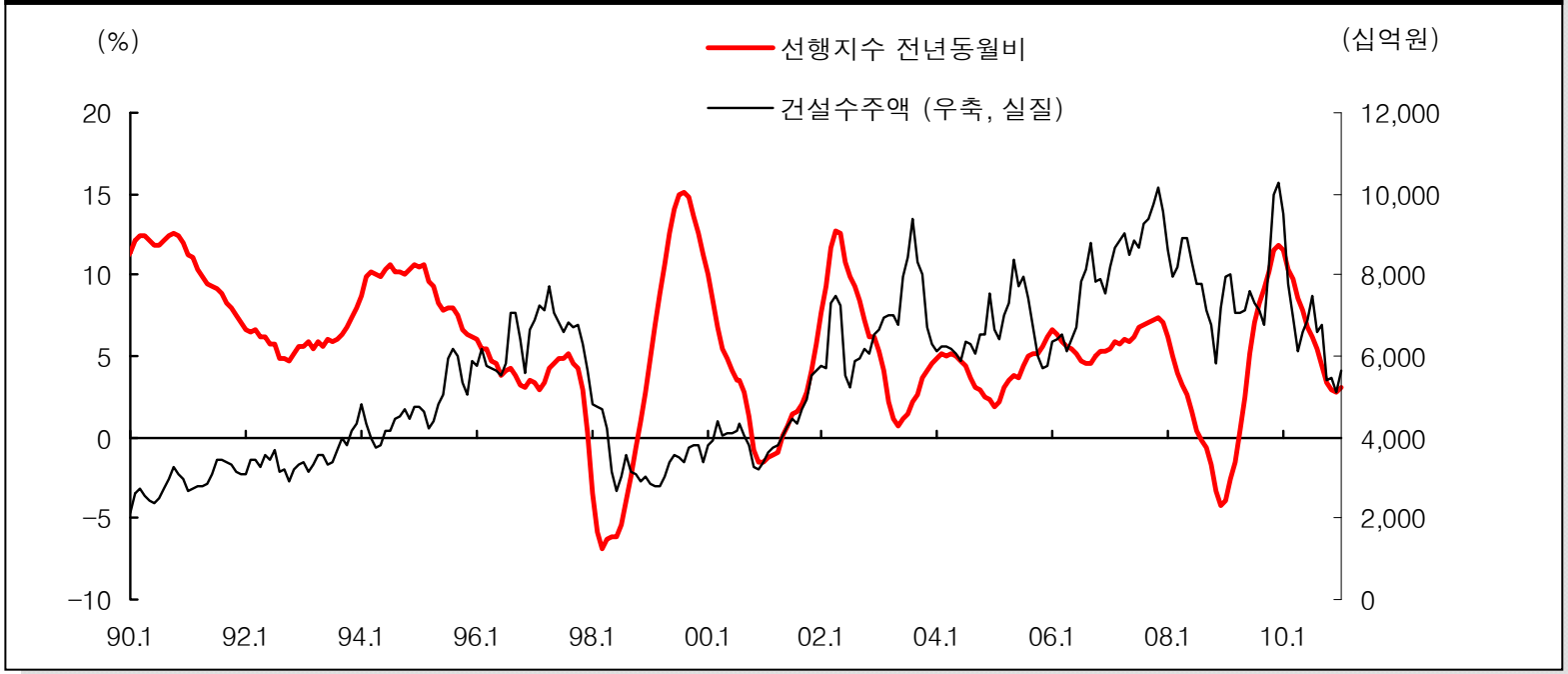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7 – 건설수주액 (상관계수 -0.05)

- **건설수주, 올해 공공부문 수주 감소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09년부터 급감한 민간부분 건설수주는 공공부문 수주 확대로 방어**
  - **그러나 2010년부터 경제가 일정부분 회복됨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
  - **2011년에도 공공부문 건설수주 감소 이어질 것, 민간부분 건설수주도 크게 늘어날 요인 없어**
  - **DTI완화 연장 불투명, 재건축연한 유지 조치도 악재**

선행지수와 기계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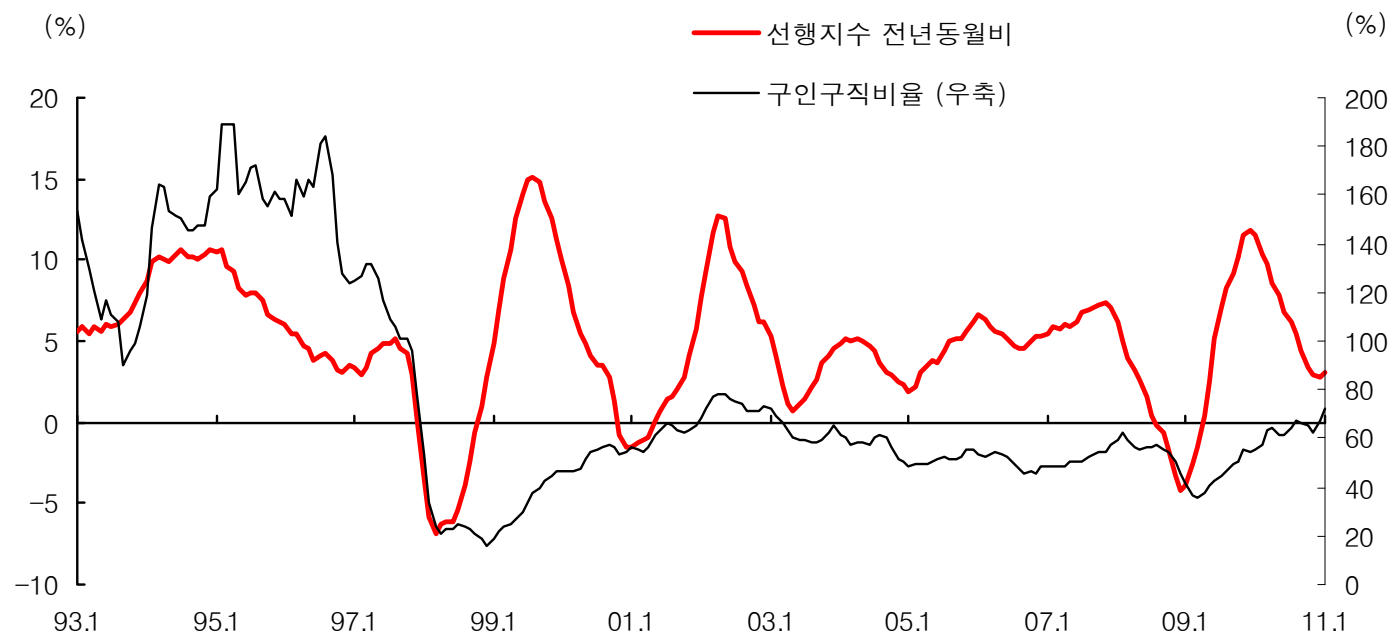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8 – 구인구직비율 (상관계수 -0.07)

- **2009년 이후 계속 지표 개선되는 중**
  - 구인구직비율 = (신규구인인원 / 신규구직자수) X 100
  - 신규구직자보다 신규구인인원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 (경기회복을 반영)
  - 현재의 성장률 전망치 달성된다면 지표는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

선행지수와 구인구직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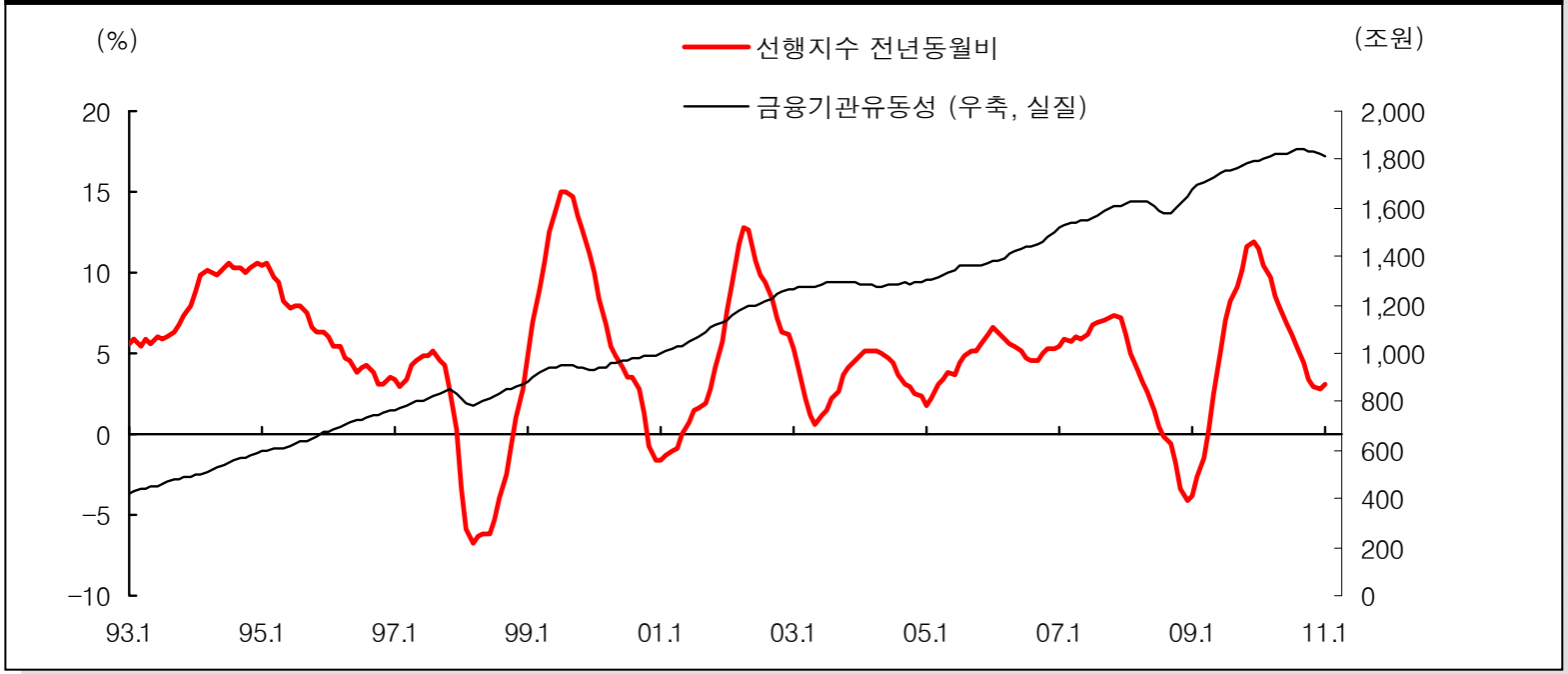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9 – 금융기관유동성 (상관계수 -0.11)

- **부동산 침체, 펀드 자금 이탈로 금융기관 전체 유동성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대출증가율 둔화 지속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가계대출 증가규모 크게 둔화된 상황, 대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으로 인해 대출수요 없음,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대출을 회피하고 있어 역시 대출증가율 둔화
  - 주식형 펀드자금 이탈 지속 : 이탈한 펀드자금은 예금으로 일부 유입
  - 전체적으로 돈이 활발하게 경제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선행지수와 금융기관유동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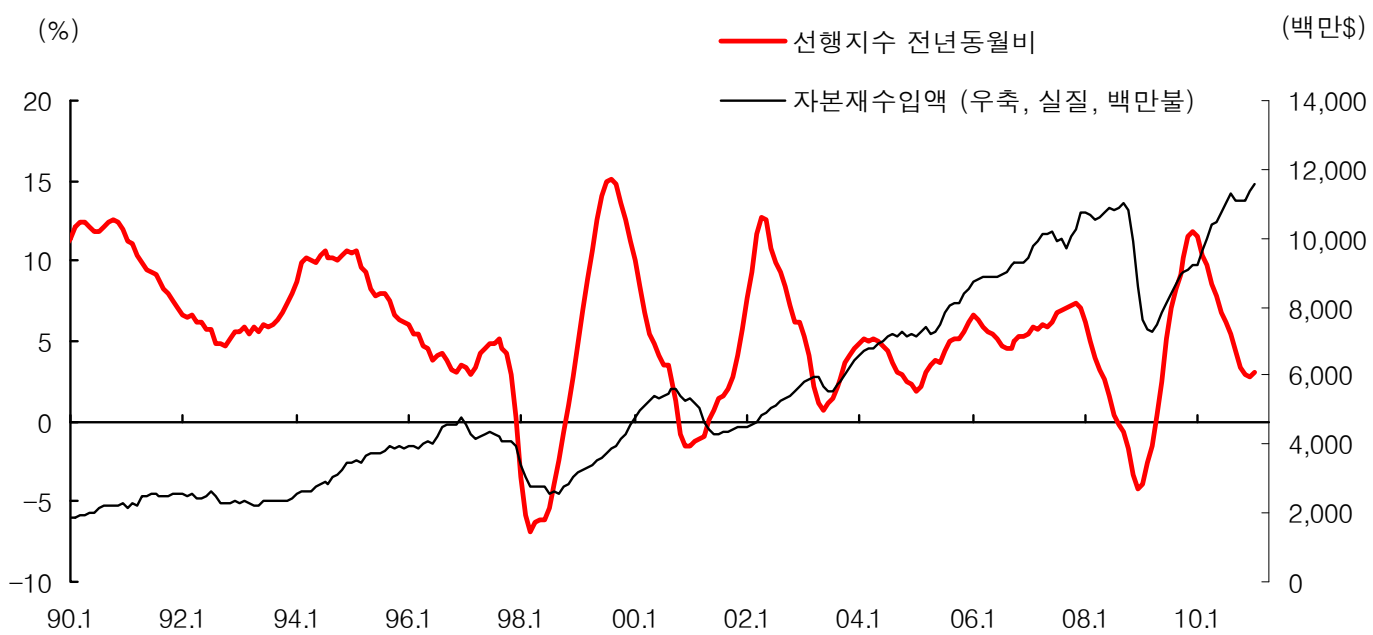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SK증권

구성지표와 선행지수 10 – 자본재수입액 (상관계수 -0.16)

- **수출 호조, 향후에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자본재 :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와 장치 등
  - 수출 호조로 이전수준을 빠르게 회복
  - 기업들 매출에 큰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선행지수와 자본재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SK증권

결론 : 2월 반등 지속 예상, 상반기 상승세 지속 전망

- **2월 반등 지속**
  - 재고순환지표가 견인하는 선행지수 반등 지속 전망
  - 3월 반등도 지속 전망
  - 단, 우려하는 점은 3월 소비자기대지수(심리지수)가 일본대지진 직후 조사되면서 급락했다는 점
  - 선행지수가 일시적으로 3월에 반락할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이것은 말그대로 '일시적'
- **상반기 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전망**
  - 선행지수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재고순환지표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개별 요인들 역시 올해 상승 요인 4개, 중립 요인 3개, 하락 요인 3개로 상승 요인이 우세
  - OECD 경기선행지수가 중국, 한국, 멕시코 등 의미있는 국가들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 의미 부여
-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
  - 선행지수 상승은 역시 채권금리 상승 재료
  - 채권 매수 수요가 여전히 풍부한 가운데 일단 경기의 방향은 채권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 확인

SK 증권주식회사

대표전화 : 3773-8245

리서치센터	3773-8831
채권영업팀	3773-8517
종합금융팀	3773-8448
법인금융팀	3773-8383
법인영업1팀	3773-8550
법인영업2팀	3773-8951
법인영업3팀	3773-8521
기업금융1팀	3773-8428
기업금융2팀	3773-8088
IPO팀	3773-8353
FAS팀	3773-8745
CM1팀	3773-8732
CM2팀	3773-8737
고객행복센터	1588-8245 1599-8245

서 울

영업부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SK증권B/D 2층	3773-8245
명동지점 중구 명동1가 59-1 증권B/D 2층	774-8245
대치역지점 강남구 대치동 507 원플러스상가B/D 3층	562-8245
압구정지점 강남구 신사동 612-1 압구정증권B/D 4층	515-8245
종로지점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B/D 3층	745-8245
서초지점 서초구 서초동 1714-21 3층	596-8245
테헤란로지점 강남구 대치동 944-11 삼흥 제2B/D 3,4층	569-8245
여의도자산관리지점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SK증권B/D 2층	3773-8677
서린지점 종로구 서린동 99 서린B/D 지하1층	725-8245
신촌지점 서대문구 창전동 72-21 거촌B/D 4층	323-8245
역삼역지점 강남구 역삼동 646-18 고운B/D 3층	567-8245
신반포지점 서초구 잠원동 16-1 잠원B/D 1층	3476-8245
송파지점 송파구 가락동 99-5 효원B/D 4층	449-8245
방배역지점 / 방배자산관리지점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B/D 1층	521-8245
논현지점 강남구 신사동 588-21 강남B/D 1층	553-8245
강남대로지점 강남구 역삼동 832번지 SM빌딩 2층	3663-8245
청담지점 강남구 청담동 47-2 명보B/D 3층	3448-8245

지 방

수원지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대우 월드마크 2층	(031)206-8245
안산지점 안산시 본오동 877-8 보노피아B/D 2층	(031)416-8245
성남지점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40 대한생명B/D 4층	(031)721-8245
분당지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3 한국학원B/D 2층	(031)708-8245
정자역지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1 분당 더샵 스타파크 1층	(031)749-8245
이천지점 이천시 이천읍 창전동 165 화창B/D 5층	(031)634-8245
남양주지점 남양주시 호평동 638-1 늘봄타워B/D 3층	(031)594-8245
의정부지점 의정부시 금오동 474-2 대송B/D 3층	(031)861-8245
경기광주지점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2층	(031)797-8245
파주지점 파주시 금촌동 986-1 청원센트럴타워 3층	(031)945-8245
중동지점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9 한국산업은행B/D 3층	(032)325-8245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심곡동 248 우민B/D 4층	(032)568-8245
구월동지점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1241-4 아세아프라자 3층	(032)464-8245
홍성지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 선일B/D 5층	(041)634-8245
공주지점 공주시 반죽동 1-2 금성B/D 3층	(041)858-8245
대전지점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75 아이B/D 1,2층	(042)472-8245
청주지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청주여객터미널B/D 3층	(043)268-8245
금왕지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3리 247-7 삼왕새마을금고 2층	(043)878-8245
부산지점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36 SK네트웍스B/D 2층	(051)633-8245
구서지점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84-3 금정타워 3층	(051)581-8245
연제지점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702-1 프라임시티 2층	(051)851-8245
해운대지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05 벡스코센텀호텔 3층	(051)720-8245
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달동 1365-13 종범B/D 2층	(052)258-8245
서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무거동 465-1 신정B/D 3층	(052)222-8245
대구지점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B/D 2층	(053)254-8245
대구서지점 대구시 달서구 본동 225-1 송림백화점 3층	(053)651-8245
성서지점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244-4 해일B/D 3층	(053)586-8245
영천지점 영천시 완산동 1056-3 청우B/D 5층	(054)336-8245
왜관지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2-25 2층	(054)975-8245
진주지점 진주시 상대동 299-4 명신예식장B/D 3층	(055)759-8245
포항지점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5-17 대홍B/D 2층	(054)249-8245
마산지점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45-12 건설공제조합B/D 4층	(055)298-8245
창원지점 창원시 상남동 73-3 서울메디컬센터 1층	(055)262-8245
삼천포지점 사천시 동금동 141-7 경남은행B/D 3층	(055)834-8245
서진주지점 진주시 신안동 582-1 신안B/D 5층	(055)744-8245
광주지점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9-2 제일은행B/D 4층	(062)222-8245
상무지점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6-1 동양B/D 4층	(062)374-8245
남원지점 남원시 하정동 107-2 유남B/D 3층	(063)633-8245
전주지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8-2 영광B/D 2층	(063)287-8245
고창지점 전북 고창군 읍내리 638-1 전북은행B/D 2층	(063)562-8245
순천지점 순천시 연향동 1326-1 LG빌딩 4층	(061)746-8245

본 보고서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된 것으로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치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본 자료를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